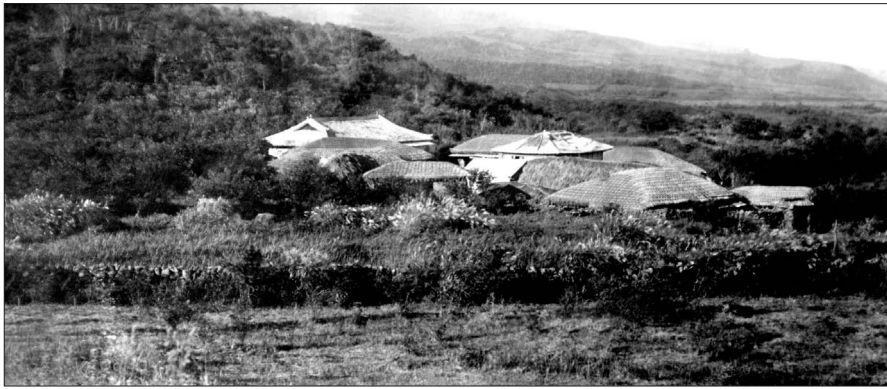


흑백사진에 담긴 제주 불교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옛 관음사 전경 등 200점 전시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이 9월~17일까지 제주도에문화재단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1936년 관음사 전경

(주)제주불교신문(대표이사 성효)이 제주불교 근현대사 100여 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을 연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이 9월 17일까지 제주도에문화재단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50여 점의 흑백사진은 제주불교의 100년사가 기록된 흑백필름의 리얼리티를 통해 제주불교의 역사와 선사들의 삶, 문화 조명을 조망하고 향후 제주불교 100년의 해안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불교는 "제주불교 100년 역사에 남을 흔적들을 고스란히 엮었다. 섬지역 특성상 제주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기록해 왔던 제주불교의 발자취와 사부대중들의 수월 흔적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불교 역사의 중흥조 안불려관 스님, 도내 대덕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의 수수했던 모습, 각 사찰의 발전과 신도들의 변화 모습, 보물 불탑사 오층석탑의 변화 모습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진집도 발간된다. 사진집에는 전시에서 사용됐던 사진에서 200여 점을 추가해 좀더 생생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제주 불교계가 주도한 1918년 법정사 항일항쟁 주역들, 그리고 각 사찰별 사진과 도내에 법문을 설하기 위해 내도했던 목담 스님, 제주불교의 중심축이 됐던 톨비니불교학성회, 대불련, 제주불교법우회 등 신행단체, 불교장래 및 결혼식, 교계 복지시설, 봉축탑 변천사 등 제주불교 100년을 아우르는 사진들이 총 망라됐다.

한편, '절오백 당오백'이라 불렸던 제주는 타 지방에 비해 전통적으로 불교의 교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18세기 초 이형상 목사가 사찰 및 불상을 훼손하는 등 지독한 배불정책으로 약 200여 년간 무불(無佛)의 암흑기를 맞이한다. 이후 안불려관 스님이 해일굴에서 터를 잡고 1908년 관음사를 창건하면서부터 새로운 중흥기에 접어들었다. 정혜숙 기자

다양한 불상 안에 담긴 인간의 향기

이재운 작가 '인향'展... 9월 25일~10월 1일 불일미술관



이재운 작가

"불교 조각이라 하면 대부분이 근엄한 모습을 떠올리죠. 카리스마 자비 온화함 등이 담긴 불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인간적인 불상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의 작품은 기존 불상의 형상에서 변형을 가해 젊은 작가 이재운의 작품세계를 표현해낸다.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이진형 작가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상 조각 속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그의 진로까지 바꾸기에 이른다.

"원래는 무역학과나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고3 때 진로를 바꿔 불교미술을 전공하게 됐어요. 전통 문화를 이끄는 일로 대를 이어가고 싶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 자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동에 채색·금분 입힌 부조와 환조 수월관음·달마 시리즈 주목 부친 이진형 씨와 삼부자전 계획

있어요. 물론 남들보다 늦었기에 어려움이 많았죠."

중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중국에서 불교조각을 공부하고 돌아온 작가는 지난 2010년 1회 전시를 연 바 있다. "당시, 아버지는 물론 법련사 현호 스님, 간송미술관 최원수 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아 개인전을 열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낸 전시였죠. 이번 전시는 제가 기획하고 구상한 작품들이 전시된다는 점에서 저의 향기가 들어간 첫 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교조각장이자 아버지인 이진형 작가가 이재운 작가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 "처음에는 아버지 상화를 닮았다는 말이 정말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저만의 색깔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작품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저만의 향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버지 이 작가는 몸소 실천하는 삶으로 작가정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사업으로 불상조각을 시작하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장인으로 자리를 잡고 싶다는 원을 세우셨죠. 이후 저와 동생 모두 불교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진불교미술관 등 전제산을 조계사에 희사하셨어요. 당시께서는 제 작품에 대해 이렇다 할 조언을 한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삶을 통해 제가 어떤 작가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야 만족할 만한 향호가 나올 만큼 작가의 마음과 작품이 비례한다는 불상 조각. 부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즐겁고 밝게 살며 근심 걱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그의 작품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작가는 그렇게 불상의 다양한 모습에 그의 향기를 담아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불교조각장 이진형 작가와 아들이



수월관음. 청동에 채색

재운 이재운 작가는 올 연말 삼부자전을 기획 중에 있다. (042)934-846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원효대사' 제작 모금액 1천만원 달성

현대불교 기사 게재 후 후원자 몰려...내년 9월 개봉 목표

김선아 감독의 다큐 영화 '원효대사'가 제작비 마련을 위한 1차 모금액 달성을 이뤘다. 7월 26일부터 후원모금 사이트인 텀블벅에서 시작된 모금은 5백만원 선에서 멈춰 있었지만 지난 9월 3일 현대불교 인터넷 사이트에 기사가 게재되면서 후원자가 급속도로 밀려들었고 5일 만인 9월 7일 1천만원 목표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감독은 "현대불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은 경남의 정목 스님 등 후원자가 몰리면서 1차 목표가 빠르게 달성됐다"며 "제가 하는 작품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후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김 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한 후원자와 후원기관을 기



사진은 '원효대사'의 자문을 맡은 미국 UCLA 로버트 버스틀 교수와의 인터뷰 장면

다리고 있다.

한편, 재미교포 김선아 감독은 불교를 넘어 한 명의 위대한 사상이 원효 스님의 사상과 삶을 다큐영화로 제작한다. 내년 9월 개봉을 목표로 한 '원효대사'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 존재론적 문제에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정혜숙 기자

깨달음의 열쇠 '만다라'로 희망 전하고자

9월 25일~10월 1일 공평 아트갤러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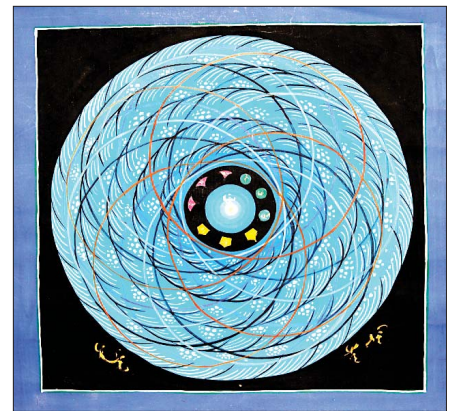
"만다라는 우주의 중심을 의미하죠. 보는 이들이 하여금 행복과 평화를 전해줍니다. 깨달음의 눈을 가진 열쇠, 문화의 아이콘 만다라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 빛의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동휘 스님의 해피코스모스만다라 대전이 9월 25일~10월 1일 인사동 공평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해피움' '우주의 중심' '마법의 눈동자' 등 200여 점의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스님은 "우주의 중심은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빛의 길 대우주의 에너지와 하나되어 원이 형성되는 과정을 푸른색과 오색으로 표현했다. 마법의 눈동자는 대우주를 상징하는 5개의 원인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과 소우주를 상징하는 3개의 사각형 신(身)구(口)의(意)가 빛으로 하나되어 운명을 바꾸는 빛나는 수레바퀴를 의미한다"며 작품을 설명한다. 여기에 대우주를 탄생시키는 빛과 소리의 씨앗 '움'과 삼속에 머물지 않는 원을 성취시키는 옴마니반메움을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이루어진다. 해피움 시연, 해피스타 군단 발대식, 참가 대중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만다라 그리기 등이 열린다. (02)736-0108 정혜숙 기자



동휘 스님 작 '우주의 중심'

since 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상호인쇄

한지달력

수첩달력

미니달력

한불가

12절(소)달력
2,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 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사이즈입니다.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수첩달력 200부 이상 650 원

• 2000부 @60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미니달력 200부 이상 450 원

• 2000부 @400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한불가

시명스님

스님은 다수의 방송 출연과 대구불교교육원, 부산불교교육대학, 영축불교교육대학, 동국불교대학 등 여러 불교대학에서 찬불가 및 불교음악 등의 강의를 맡았으며 해인사, 불영사, 관음사 등 여러 사찰의 합창단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현재 부산 청은정사에 주석, 여러 불교대학에서 강의 및 집필과 작곡, 작선, 명상 등 독락(獨樂)에 빠져있음.

CD1

1. 집회가
2. 삼귀의
3. 찬불가
4. 보현행원
5. 청법가
6. 사홍서원
7. 산회가

CD2

1. 관세음보살
2. 당신의 미소
3. 부처님은 이리시네
4. 성불을 위하여
5. 연꽃피어 오르리
6. 우리도 부처님같이
7. 진리의 빛

17.성도재의 노래 16.홀로 피는 연꽃

시명스님 찬불가 CD1/CD2 ₩6,500

해설·가사책 수록